

## 행복한 금요 편지

#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의 편지

박휘락<sup>1)</sup>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안민아, 내 손자야

할아버지다. 죽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편지해서 놀라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지를 쓰고, 혹시 전달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미안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된 것을 속죄하고, 너에게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살았을 때 나는 너에게 예쁜 옷이나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했다. 너와 함께 식사하고, 너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 지금도 너와 함께 보내던 시간, 너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흐뭇해하던 행복한 기억이 떠오른다.

실제로 나는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 너의 아빠도 나름대로 성공하여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손자인 너도 대학을 나와 취직한 상태였으니까. 네가 첫 월급으로 내 속옷을 사주었을 때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죽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 수 없었다면 나는 눈을 감을 때의 행복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죽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다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불안한 세상을 물려준 것 같기 때문이다.

북한이 연일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구나. 20개 가까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구나. 수소폭탄까지 개발하였다고 한다.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공격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기도 한다는구나.

1)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대령으로 전역 후 현재 국민대학교 부교수 겸 정치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우리 군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핵무기 없이 핵무기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방어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구나. 그리고 미국이 대신하여 보복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기는커녕 오로지 표를 얻어서 당선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이러한 사태가 된 것은 모두 나를 비롯한 우리 세대들의 잘못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과소평가했고, 개발된 이후에도 설마하는 생각으로 총력을 기울여 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994년도에 영변 핵발전소를 폭격해버렸으면 지금 이러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데 말이다.

이스라엘의 사례가 생각난다.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할 목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자 그것을 공군기로 파괴시켜 버렸다. 시리아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다. 국제여론이 그들을 비난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자식과 손자들을 핵위협에서 살도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직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선조들과 비교하면 나와 나의 세대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너에게 이와 같이 불안한 사태를 물려준 것을 미안해하며 편지를 써야 한다.

### 사랑하는 안민애

염치가 없지만 해야 할 말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다. 안보를 튼튼하게 해라. 국가라는 울타리가 튼튼해야 그 속에서 너도 행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행복해지려면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Don't Worry, Be Happy"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네가 "지금 여기"만을 생각하면 너의 자식들은 불행해진다. 네가 "Don't Worry"하면 너의 자식들은 "Unhappy"해진다. 너와 너의 세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나와 나의 세대들이 "지금 여기"만 생각하고, "Don't Worry, Be Happy"라면서 나의 행복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너의 행복을 조금 희생하여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지금 여기"와 함께 "나중 거기"도 생각해주라. 일부는 "Worry"함으로써 나와 너의 후손들이 "Be Happy"하도록 만들어주라.

2016년 4월

어느 산기슭에서 할아버지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